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26.(목) 12:00
(지 면) 2026. 11. 27.(금) 조간

행안부, ‘제5회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회의’ 아세안과 재난관리 협력 기반 마련

- 자카르타서 아세안 11개국 장관급 회의 공동 주재, 향후 5년 워크플랜 채택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와 재난 분야 업무협약(MOU)으로 양자 협력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5회 한-아세안 재난관리장관회의(AMMDM*)’를 공동 주재하고, 아세안 11개국과 향후 5년간(’26~’30) 협력의 이정표가 될 ‘한-아세안 재난관리 워크플랜(이행계획) 2026-2030’을 공식 채택한다고 밝혔다.

*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Disaster Management) 대한민국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이 재난위험 경감을 위해 2022년 개설한 장관급 대화 채널

이번 장관회의는 지난 7월 제9차 한-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신규 워크플랜을 장관들이 최종 승인하고, 공동 이행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우리 측 대표인 안전예방정책실장을 비롯해 아세안 11개국, 아세안 사무국 등 국제기구 대표단 100여 명이 참석해 향후 5년간의 재난관리 협력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되는 워크플랜은 아세안 재난관리·긴급대응 협정(AADMER*) 프레임워크(체계)에 맞춰 마련되었으며, ▲위험평가 및 조기경보 ▲예방 및 완화 ▲대비 및 대응 ▲탄력적 회복 등 4개 전략 분야, 12개 세부 협력과제로 구성되었다.

* (ASEAN Agreement on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 ASEAN 회원국들이 재난 발생 시 상호 지원 방안과 평시 대비체계를 명문화한 협정

특히, 행정안전부는 이번 워크플랜을 이행 수단으로 아세안 재난관리 역량 강화(D-CAB*) 2단계 사업과 재난관리 전문가 인증제도(ASCEND**)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K-재난관리 모델의 표준화·브랜드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 (Disaster Capacity Building) 한국의 선진 재난관리 시스템과 노하우를 아세안 국가들의 여건에 맞게 전수하는 종합 역량 강화 프로젝트

** (ASEAN Standard for Certification of Experts i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표준화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자격 인증 시스템

다자 협력 외에도 장관회의를 계기로 양자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인도네시아와는 11월 25일 재난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데이터 공유·공동연구, 인적 역량 강화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와는 올해 안에 재난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워크플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매년 분야별 이행상황 점검, 2027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아세안 장관급 인사 초청, 재난 안전 데이터 분야에 대한 회원국 간의 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5회 한-아세안 재난관리장관회의는 올해 7월 개최한 한-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워크플랜을 장관급 논의로 확정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이행 동력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6-2030 워크플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K-재난관리 모델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상훈 (044-205-5110)
		담당자	사무관	한광순 (044-205-51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